

全通 전설을 거꾸로 여기고, 거꾸로 참으로 삼으면, 이것은 곧 상된 소견이니 참다운 이익을 얻지 못하리.

(法句經·쌍요품 32절)

東大新聞

발행주최	인간개발	신조박사	국립중앙	주한김영준
편집장	김국영	편집장	김국영	편집장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김국영	편집부

제 1053호 (주간) 1994.1.11 동국대학교 1955.10.13 제 3호 창간호(가)일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8월29일 (수요일) 【1】

중국 북경대와 학술교류 합의

본교, 사회주의권 대학과 물꼬 터 불교관계서적등 공동 논문집 발간 예정

연변대, 교수·학생 교류제의

본교가 우리나라 학계 최초로 중국 북경대학과 불교학술교류를 갖기로 합의결정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대학과의 본격적인 학문적·인적 교환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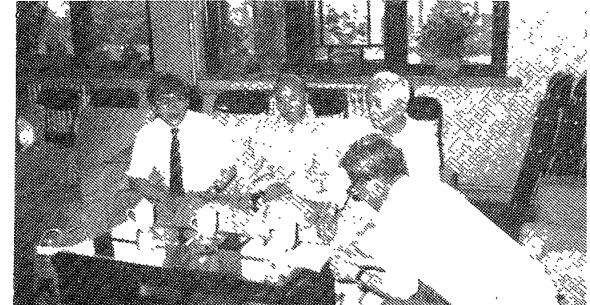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27일 본교 吳亨根(불교학)교수와 북경대학 정자원장 法山(선학)스님이 북경대학 계신팅(철학)전통장과 연변대학 노동문 인사처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지난 11일 귀국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 체결로 본교는 북경대와 선학총서(全20권)발간 △공동논문집 발간 △한·중 공동 저술서 발행 △불교관계서적 20권을 편찬하게 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까지 교환하며 아울러 논문집 발간 계획은 오는 91년 7월경으로 합의했다.

논문의 주제는 '선과 한국문화(한국학)' '선과 중국문화(중국학)'로서 집필위원은 양교 교수 10~15명 내외이며 북경대학에서는 해외문화, 동방어문학, 사학, 철학, 불교미술학 등 관련교수들이 집필할 예정으로 10월중 제1회 집필위원회를 확정 통보하며 발행하는 양국어로 번역하여 발간기로 합의되었다.

또 연변대학과의 회담에서 양교간 교수·학생교류에 관한 긍정적 제의를 받아들여 인적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吳亨根등은 아세아태평양연구교수와 세계종교연구교수와도 회담을 가졌으며 중국불교회도 방문, 불교문화 교류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본교가 중국 북경대학과 지난7월29일 오전10시 북경대 본관 회의실에서 학술교류에 합의하는 서명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吳亨根 불교학자, 정자원장 法山스님, 계신팅 전 북경대 총장, 양영주(역사학) 북경대 교수)

류상태에 놓여있다.

2학기 학사일정

31일까지 수강신청 예정

학교당국은 90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학기 등록은 지난 13일부터 시작, 오는 31일까지 최종 마감되며 지난20일 개강과 더불어 2학기가 시작됐다.

또한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각 소속대학 교학과와 학과사무실에서 실시되며, 동계방학은 오는 12월10일 시작된다.

‘연구년제도’ 혜택 18명

89년 2학기부터 연구성과 진작 일환

대학의 학문연구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실시된 ‘교수연구년제도’ 시행 1년동안 본교 교수 18명이 혜택을 입었다.

교수연구년제도는 본교10년 이상 재직교수로 6개월이상 해외연수 5년이 지난 사람으로 희망신청을 받아 1년간 연구과제를 갖고 강의없이 연구직업에 임하는 것으로 90학년도 2학기 실시대상에는 金興植(중과대 임학과)교수가 선정되었다.

이에따라 金교수는 ‘밀의 우수교배 진전’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과제로 90년 9월1일부터 오는 91년 8월31일까지 1년간 연구직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8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교수연구년제 해당 교수명단과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수익사업계획 추진

재단소유토지중 5백만평이용

본교 재단(이사장=吳絳園)에서는 불교공민복지 및 위탁시설등 재단수익사업을 추진, 학교발전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를 위해 총1천6백여만평에 이르는 재단소유토지중 활용가능한 5백여만평가량을 수익사업에 이용키로하고 이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재단은 재단소유토지중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던 경관사원의 7천8백여평, 전라도의 임야 30만평등을 등기완료했으며, 장충수영장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李載昌(불교학) = 한국불교사원론 △宋堯仁(영문학과, 작고) = 비확산언어로부터의 문화적 전이 △閔丙天(정치외교학과) = 통일이론과 남북통일의 제과제 연구 △金昌浩(임학과) = 수목번식법 △朱永植(농업경제학과) = 농업경제학 개론 및 축산정책연구 △李載燮(건축공학) = 건축도학 및 제도에 관한 교재개발연구 △李貞德(가정교육) = 아동의 조부모관 △金昌熙(미술학과, 작고) = 국내외 개인전 및 초대전 △金福善(영문학과) = 'The Return of the Native'의 심층분석 △李吉鏞(사학과) = 미국이민사 △金榮成(통리학과) = A 8 양산화 및 박막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韓相龍(법학과) = 한국에 있어서 정치과정과 기본권의 문제상향 △洪壽鉉(정치외교학과) = 일본의 다당제 연구 △金仁鴻(정치외교학과) = UN과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崔世和(국어교육과) = 시간본 유학의 연구 △金榮澤(미술학과) = 한국화 오늘의 표현방법 연구 △李智冠(선학과) = 해인사지 편찬

보리수

회적의무(다르마), 해탈(목사)을 삶의 과정과 단계에 따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네가지 목적이라고 보았다.

불교의 중도란 원래 현상적인 것에만 탐닉하는 극단적 쾌락주의와 그 반대로 불절이나 현세적인 것을 전혀 욕망하지 않는 극단적 절제주의를 가리킨다.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하면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것은 과거의 불운한 역사 속에서 왜곡된 우리 불교의 병든 모습이지 본래의 불교의 가르침은 아니다.

불교는 현실의 고통을 절망하고 도피하는 열세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적시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종교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삶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보지 않는다. 그 한 예로서 경전(經典) 전 문성과 사자후경(史記)에는 빈곤이 많은 사회와 부도덕의 원인이므로 그런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빈곤을 없애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그러나 불교는 경제적 복지가 인간의 행복의 필요조건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기반이 없는 물질적 풍요는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고 본다.

삶은 다양한 요구와 측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전체이므로, 어느 한 측면을 분리시켜 그것만이 전부라고 파악하면, 온전하고 건강한 삶에서 이탈되기 쉽다.

李芝洙

中道와 조화로운 삶

‘퇴경당 전서’ 10권 완간

故 權相老박사 저서 총망라

본교 초대총장을 역임한 故 權相老박사의 저서를 총망라한 ‘退耕堂全書’ 전10권이 완간됐다.

이번 전서는 본교 李亨根(국문학) 명예교수, 李亨潤 불교종신대학장등 후학들이 權相老의 학력을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회(회장=관용스님)를 구성, 2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6월25일 결실을 보게 됐다.

權相老박사 필생의 저서로 꼽히는 한국사학전서를 비롯, 한국불교사학, 이조실록불교, 한국지명연혁사, 조선문학사, 불교학, 문학, 사학, 번역서 등을 총망라한 이번 ‘退耕堂全書’는 ‘한국불교문헌총서’ 또는 ‘한국불교백과’라는 평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배척당하고 왜곡되어 온 한국 불교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귀중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故 權相老박사는 1879년 경북문경에서 출생, 27세에 김홍사 경흥학교와 성의학교 강사를 시작으로 조선불교월보사, 불교사 상장을 역임했으며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대학생 대상 ‘東國大學賞’이 매년 그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올바른 토양마련을 위한 文學賞이 대학자성 여러분의 훌륭한 문학적열정에 힘입어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 榮譽문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문학작품을 공모합니다.

◇모집분야

詩 부문:5편이상
小說부문:60페이지(2백자 원고지)
評論부문:60페이지(2백자 원고지)

◇응모요령

응모자격: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제출기간:1990년 9월24일~9월28일까지
시 상:시 부문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심사위원:本報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당선작발표:1990년 10월24일자 본지 紙上
작품제출처: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작품결정에 「東大文學賞」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쳐 다오 우리의 펜대가 시퍼런 칼날로 설때까지”

대학언론인 6명구속·13명입건·56명수배...(8월18일 현재)

대학언론관련 조사대상학교

전국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외국어대, 한양대, 상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단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고려대, 국민대, 국제대, 덕성여대, 중앙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한성대...

이 많은 대학, 대학언론인을 수사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은

과연 이 사회에서 정정 불순한 소수 무리가 누구인지를 민자당정권 그들 스스로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줄의 기사, 한명의 기자가 그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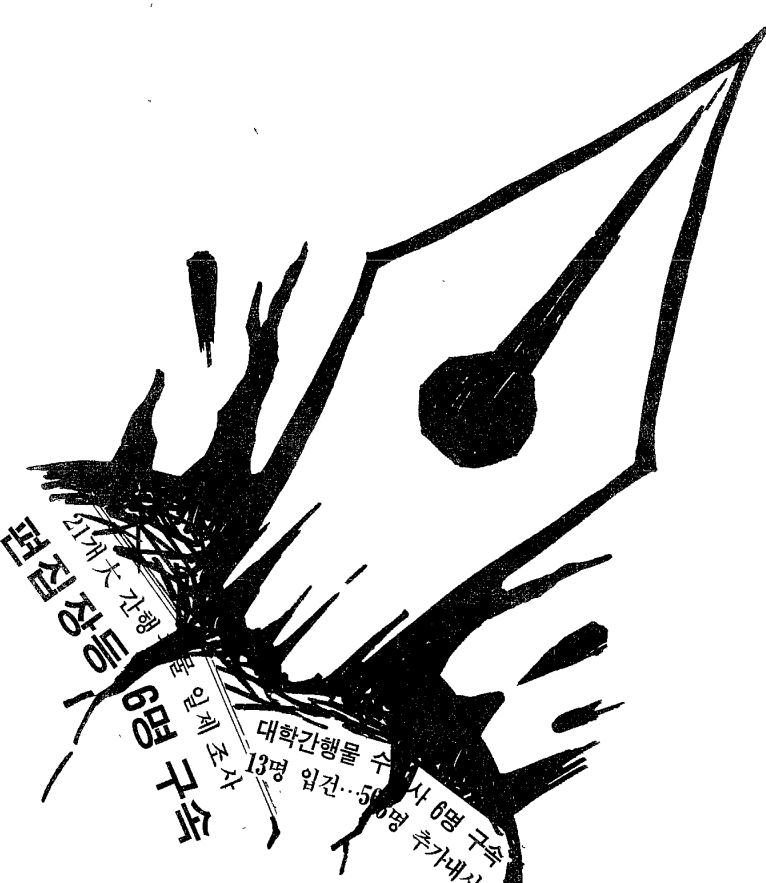
통일할 수 없고, 민주할 수 없는 그들이 이 땅 40만 청년학생의 눈과 귀를 먼저 자르려는 하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언론은 탄압이 가해질수록 우리의 펜대를 더욱 시퍼런 칼날로 갈아주는 40만 청년학생이 있기에,

우리를 얹어대는, 사천만을 얹어대는 국가보안법, 반통일정책, 외세와 그 모리배가 이땅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더더욱 시퍼런 펜대를 휘둘러 것입니다.

서울지역대학언론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대학언론협의회는 대학신문사·대학영자신문사·교직원집위원회·대학방송국의 연합협의 기구입니다.



社 說

동국행정 흔들리고 있다

학교당국이 지난 16일 단행한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노조측에서 18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우리의 대학행정을 되돌아 보게끔하고 있다.

어떠한 공조에서건 간에 인사의 문제는 조직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최대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마다 모든 공조에서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교규정집 제4편에 직원인사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또한 노사단체협약안에는 당국의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대해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으로 인사 담당부처인 총무처에서는 민주적인 인사를 위해 관례적으로 주무부서장과 과장, 부처장의 결재를 거쳐 인사발령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학교당국에서 단행한 인사발령을 지켜 보며 동국의 청원들은 서둘러 제의 행정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학예산집행 비판 마땅

90학년도 1학기 감사에서의 정제조치가 지난23일 철회됐다. 지난7월16일의 1차정교로부터 총학행정의 예산집행 전연정지, 불신임안 발의, 운영위의 해체 건의등의 최종 정제까지 한달여를 끌어온 1학기 감사가 막을 내리고 통상감사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이번 감사의 전과정을 지켜 보면 우리는 강한 우려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1만학년을 대표한다는, 총학행정이 감사 기간중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와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무원칙한 예산집행과 남비는 자정의 상정이고 자치기구의 꽃이 될 수 있는 총학행정의 본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매년 총학감사때마다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명확히 시정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그 우려가 있다.

학생들의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더불어 매우 귀중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회비의 지출은 규모있고 내실있게 성실하게 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장부하나 영수증절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는지 판단한다. 그 예산의 집행은 누가 공정한, 솔직한, 공정한 견제와 감시를 받을 것인가. 물론 22대

리 담당계장 뿐만 아니라 과장·부처장까지 무시한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담당실무자의 권리와 의무는 실종되고 말았다.

둘째로 이번 인사이동 가운데 2명의 직원이 비록 직무대리라는 명칭을 ‘나중에’ 달기는 했지만 승진발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승진발령은 직급이 낮은 직원이 높은 직원을 제치고 이루어진데서 여러 의혹과 불만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셋째로 보복인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인사발령자 21명중 16명이 부활사급이상 3명이 부활사급 이상이었는데 유독 전 노조부위원장인 김윤길씨만이 서기급에서 이등, 기복과에서 학적과로 전보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인사의 내용이 전연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동국행정을 흔들고 있는 독단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인사제정권이 아무리 총장에게 있다해도 그 권한을 무조건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규칙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순리가 따르는 가운데 동국의 발전도 기대될 수 있을지 모른다.

총학행정이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좀더 바른 예산의 집행과 성의있는 처리가 아쉽다는 것이다. 우리는 총학행정이 대중속에 뿌리박아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커나가기 바란다. 그렇게 되도록 성실성정적 도를 것이다.

요컨대, 학생회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도서관, 신문한정자 및 기타 목적이나 마련되지 못하고 총학행정이 사무실 구축에 골라나가는 것은 1만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이다.

학생회의 건부는 완벽한 사람일수 없기에 실수할 수 있고 착오도 일으킬수 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남비는 예산, 무원칙하게 집행되고 관리되는 예산은 사립의 출고 그들과는 판격없이 사라져야 한다.

더더욱 그것이 간부들의 관성적인 사업작품과 경조정도로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가혹하게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잘한들, 중대한장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학생 대중들에 대한 사랑이며 민주화 된 나라, 해방된 민족의 필자됨이라 가정하고 2학기사업의 예산은 좀더 공개적이고 건설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한다.



유 선 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요즘처럼 세상살이가 어치구니 없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가질 수 있는 만큼은 가진 자들이 하루 세기 벌려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투기바람으로 삼켜버리는가 하면, 신장한다는 국에서 권력을 향한 난투극을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국민이 심판한 박정희 열사의 고문경관에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어치구니 없는 일은 지난 7월 20일 노태우가 발표한 ‘남북한 민족대교류에 관한 특별발표’이다.

이 발표는 본단의 세월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기가 드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아편이 국회를 박차고 나와 민주정 일당독재에 반대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나왔다는데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많은 사람들

동약기자석

학생규찰대를 건설하자

학교주변 폭력배 난무

“학교주변에 폭력배가 난무한다”는 말은 이제 오늘의 일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의 주위에서까지도 폭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전 불교학과의 한 후배가 새벽4시경에 각목으로 머리통을 가격당도 7cm를 깨고도 후유증이 염려되어 지금 서울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나 엄청난 놀라움 일인가?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학교주변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번에 경대교 앞에서 일어났던 폭력배사건은 언제나 기억되는 기다림 속에서 보낼 수 만은 없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해결책이 바로 학생규찰대이다. 제6대 총학이 공약사항으로 내걸

등 북부 파출소)에 신고 했을 때에 불구하고 파출소에서 뒤늦게 출동해서 그들을 붙잡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우들은 우익단체(?)와 싸우고 학교주변에서 그런일을 벌인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끼기도 하였다.그날 집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주변에서 선량한 학우들이 희생은 당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행정은 어디에 바뀔지, 학교주위에 대한 방치는 그들이 말하는 미래의 주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없이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해결책을 언제나 기억하는 기다림 속에서 보낼 수 만은 없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해결책이 바로 학생규찰대이다. 제6대 총학이 공약사항으로 내걸

양심수 석방의 당위성

감옥에 갇힌 ‘인륜과 민족의 미래’

이 야당까지 합세한 반민자당 투쟁의 기세에 놀란 현 정부가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술수가 나타나며 의아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정야야 어찌되었건 통일에 목발했던 우리 국민들은 집권 2년여 동안은 속이왔으면서도 속사나 하는 기대로 이 발표에 기대를 담아왔었다. 물론 정부가 생각한 사람들이 방북신청을 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북한방문이야 어렵다고

다. 참으로 오랜만에 거창한 결심을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선언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부의 7·20 민족대교류 선언이 진실에서 우려 나온 것이 아님은 다른 어느것보다도 8·13일 광복 45돌을 맞이하여 정부가 단행한 가석방 조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모범 수행자 675명과 소년원생 125명 등 모두 800명을 특별 가석방, 가피원 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석방조치로

하고 하나의 계기라도 마련해 보자고 하던 7·20선언이 있고 난 직후에 어울리는 것인지 되 물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를 보면 열거지를 안다는 옛말처럼 입으로는 남북이 자유왕래를 얘기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돌리면서 민족의 염원을 불로로 삼는 행동은 아닐까.

지금 감옥에는 1300명을 넘어 1400여명을 바라보는 엄청난 숫자의 양심수들이 있다. 특히 그중에는 150여명의 장기복역 양심수들이 길게는 40여

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노태우는 해마다 원성을 사왔던 8·15 가석방 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하였다. 6공화국 들어 단행된도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조치를 실시해 본 적이 없는 노태우는 이번에도 양심수 석방의 요구를 깨끗이 무시해 버렸다.

지난 87년 7월2일, 6월 항쟁으로 감을 먹은 정부가 6·29선언이라는 미명책으로 국민의 일을 막으려 했을때 우리 양심수 가족 100여명은 노태우가 대표위원으로 앉아 있던 민정

6공, 시국사범 석방조치 한차례도 없어 8·13 가석방은 정부의 허구성 드러내

치더라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한가닥 바람이 있었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랜만에 국민과 정부가 배정야가 맞아 기쁘게 맞아야 했어야 할 8·15 민족대방일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지나갔다. 그 원인이 어디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의 팔로로 남한 정부의 제의를 거부한 북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어 버리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 누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풀려났으니 전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데는 구치소내에서 교도관에게 녹물을 주다가 징벌까지 받은 적이 있는 최영근 전 서울시장 육각이 모범 수행자로 둔갑해 있는가 하면 가석방의 원칙인 ‘형기의 2/3이상 복역한 자’라는 법부주 내규에도 위반된 5공비리 관련 구속자 열보현 전 서울시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석방 조치가 과연 일체로 부처 해방된 기념일 날에 그것도 범민족이 한데 모여 통일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

년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단절되어 이 사회의 또다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일관반구 얘기가 없고 이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집안이 해내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보면서 민족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읽거나 어렵다. 정부가 진정으로 범민족대회를 상사시킬 의사와 통일을 향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분단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당해온 150여명의 장기복역 양심수를 앞세우고 1300여명의 양심수들이 범민족대회 대

당 당사를 찾았다. 6·29선언의 실현은 5공화국의 온갖 부정부리에 맞서 싸웠던 양심수들의 석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 ‘문턱 낮은’ 곳을 찾았다. 경찰의 불쌍함을 듣고 어떻게 가질 수 있었던 자리에서 노태우는 자신 또한 대학생을 가우는 부모로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다시 그 말을 생각해 보건데 노태우의 ‘인륜과 민족의 미래’는 감옥속에 있음이 분명하다.

‘구속자는 외롭다’ 새삼 느껴

한장의 편지와 면회가 필요한 때

며칠전 서울구치소에 다녀왔다. 그곳은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장마를 생각하게 했다. 사당에서 천구를 만나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달려 갔다. 버스가 구치소 앞에 서자 차에 탔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려 구치소를 향해 빳속을 따라 걸으며 간혹있는 양심수들과 우리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니 발걸음과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이 주만동쪽을 가지고 정문을 통과, 정문을 시키려고 건물안으로 들어가니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벌써 많은 학우들과 어머님들이 미리와 체해서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나누었다. 만난 것이 내일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었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패배해 있는 이기심을 반성하게 되었다.

오늘 학교로 올라오며 유난히 파란 하늘을 보니 선배님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 우리들의 편지와 면회를 기다리는 선배님들의 모습도 여러가지 상념에 빠져 올라오다 우연히 게시판을 보았다. 게시판의 ‘구속자는 외롭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귀가 새롭게 다가올수록 그날의 편지와 면회가 우리의 선배님들을 비롯한 갇혀 있는 학우들을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일단의 학우들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우리를 믿고 있음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일단의 학우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우리의 학우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차한선(불교대·인도철학과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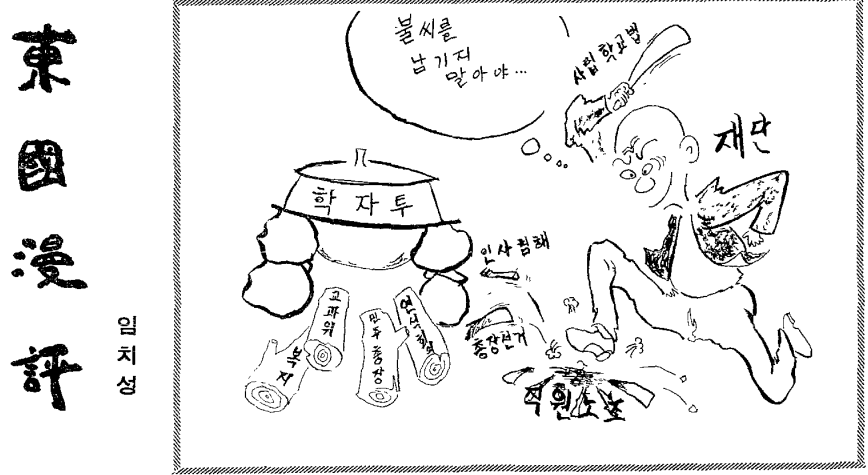
안상욱(상경대·경제과3년)

동약기자석은

여러분의

글발입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동약인들! 원고를 기다립니다. 동약이 3~5매 분량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사 여문예체부로 연락바랍니다. (교)2194



언론은 자본의 나팔수 일 수 없다

89년 4월 자주적인 언론활동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책임있는 정론지를 만들 것을 결의, 부간연 영남일보가 경영진의 ‘이류 삼류 신문이 되어도 좋으니 돈만 벌면 된다’는 채산성 위주의 경영으로 언론본연의 의무를 상실해 왔다.

또한 현 대구그룹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감원 강행 등 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작태를 보여 왔는가 하면 부당한 국간 배치전환등 패쇄적 인사조치로 일관, 편집진의 창작욕을도 누르고 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신문 탄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현 정권과 방범을 가리지 않고 언론의 자주권을 짓밟고 있다. 그러나 영남일보 노동자들은 구차한 삶의 영위를 포기하고 자본가와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언론은 절대 자본가의 노예가 될 수 없다’며 결사항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남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는 영남일보 노동자 여러분의 외로운 파업투쟁에 동지적 신뢰를 느끼며 언론일꾼으로서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언론은 결코 자본가의 손아귀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신념 아래 현재·자행되는 대학신문과 민중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 우리 영남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는 제 민주단체와 강결같이 연대투쟁할 것을 밝히며 아울러 대구그룹과 갑을그룹 그리고 현 정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우와 갑을그룹은 언론탄압 음모를 즉각 철회하고 영남일보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안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라.

하나, 현정권은 영남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탄압 음모를 철회하고 전면적이고 자주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위 사항의 수용이 없을 시 현정권과 대구그룹의 민중운동 탄압 음모에 맞서 모든 민중주체의 연대하여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중언론 재취 원년 8월27일

영남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회

도서차람증 갱신및 신규발급 안내

’90학년도 제2학기 도서차람증의 갱신 및 신규발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간: ’90.8.24(금)~9.7(금)
2. 장소: 중앙도서관 열람과(1층)
3. 준비물: ①1학기 도서차람증 ②2학기 등록명수증 ③반영함관 사진제1매(신규발급자)

※신규발급은 1학기내에 도서차람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나 2학기 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중앙도서관장

수강신청 확인및 정정안내

’90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기간: ’90.8.29(수)~8.31(금)
2. 장소: 소속대학 교과과 및 학과
3. 대상: 전교생(금학기 복학·재입학생 및 수강신청 마쳐지는 위 기간에 수강신청)
4. 유의사항: ①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추가)을 할 수 없음. 단, 전산처리 오류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정정가능함. ②교과과,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교무처장



◆원내세요

정부의 폭압에 의해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국민과 이주민, 백종민형 원내세요. 저희 형들의 삶은 피쳐낸 노동에 당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게요.

—국문과 학생회—

◆모임시드

야그들(재동대 동대부고 명성여고)이 오는 31일(금요일) PM 5시 불상앞에서 5천원(+0)을 갖고 개배같이 모여서 개강파티하고 화강선을 하자.

—내가

◆명복을 빕니다.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고이내수교수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국어국문학과 제자일동—

◆모집합니다.

컴퓨터 연구회에서 참신한 90학번 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D.U.C.A

■극예술연구회 ‘자유인’ 공연 일시: 30일, 31일 오후5시 9월1일 오후2시, 4시30분 장소: 학생회관(5층, 소극장) 입장료: 없으나 참가

—극예술연구회 일동—

◆P.T.P 신입회원 모집

들어갈때 신경계 들어가서 들어가는는 웃고 생활하고 나 올때는 왕장 을 정도로 정이 쌓이는 곳. 언제나 저희 대문 좌를 두들기세요. 사랑은 끝 시작될거이다.

—P.T.P회원 일동—

◆연극영화학과에서는 노란

방이리가 가지개를 퍼는 1학년 제3회 워크숍 공연 ‘뽕’을 올리니소식으로 합니다. 일시: 8월30일~9월1일 오후4시30분과 7시30분

장소: 본관 스튜디오

입장료: 발만 잘하면 그냥... —한 예술인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며 빼개뻬뻬 교우학과 90이 모여 M.T를 잡니다. 일시: 9월1일~2일(점막한 1박2일)

장소: 돌종고 산중은 강촌

회비: 기본+기분

—무지무지 가교본 이가

■제주 향우회 여러분! 우리 2학기를 맞아그대 한번 오게 만장 만일도 들고 술벌도 들이샤들 참읍. 다음날 4월날 랑 하정들 판심달을 가져발췌

—오돌도기 비비리가—

◆남원 향우회

전우가 은하수건너 적녀를 사랑하듯 이동룡은 춘향이를 이별한다우.

저금, 방자와 향단이는 광한

투에서 ‘보여 줄수 있는 사랑

은 이주작이요’를 속삭이고 있

데요. 글씨 흥

일시: 30일 오후5시

장소: 자비로유신 석가모니

불상앞

회비: 3x10^원

公 告

본 교육방송국(D.K.B.S)에서는 제9기 수습국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90학번 재학생 원서접수처: 학생회관 2층 교육방송국 편성실

시합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접수기간: 8월23일~9월5일

시합일시: 9월5일 교육방송국 편성실 PM 5시30분

방송에 편입되는 90학번 남·여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방송국—

‘始林’제11기 수습위원공제

시대의 나그네, 새벽의 아들이여! 인간과 역사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품고 민중속에 ‘나’를 묻는다.

모집대상: 90학번 재학생 원서접수처: 학생회관 1층 수취실

원서접수처: 학생회관 2층 교직원집

시합일시: 9월14일 오후5시30분

시합장소: 교직원집

시합과목: 상식·논술 및 면접

원서배부 및 접수기간: 8월27일~9월13일

—‘始林’교직원집위원회—

“유급되더라도 학원자주 포기못해”

세종대 사태해설

오늘로서 총파업 1백99일째를 맞은 세종대는 2학기 등록과 학사일정을 전면거부함에 따라 또다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12일 비상총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후 6월2일, 7월10일 두차례의 공권력투입이 실시되고 현재 총학생회장을 비롯 총17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아직도 교문앞에는 50여명의 전경들이 상주하고 있고, 세종대 학원자주와 불꽃은 또다시 9월을 준비하고 있다.

5월말 한때 학생들이 군자관을 점거하고 있을때 일부 체육과 학생들이 재단측의 입장을 내세우며 전수검정시험을 외치면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등으로 밀고 들어오기도 했다. 이때 예비역을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이들과 끝까지 대치하며 체육과 학생들을 설득한 일도 있었다. 댐으로 체육과 학생들과 맞설수 있었던 것은 '저들도 우리와 함께 투쟁해야 할 우리의 동지이다. 내부분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외치는 예비역들이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언론대에서는 '애교자모임'이라 하여 일반학우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항시적으로 토론의 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세종대는 일반학우들부터 서로 일치단결하여 투쟁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2일과 7월10일 두차례의 공권력이 투입될때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함으로 인해 현재 뇌수술을 받은학생, 팔이 부러진 학생등 부상학생수도 셀수 없을 정도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측에서는 28일부터 재학생 2학기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세종대 학우들은 또다시 2학기 등록과 학사일정 전면에 걸친 '거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11일 '유급조치'가 발표된 이후 사실상 유급대상자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신이 유급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문교부 유급선별기준은 유급명 해제일인 6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한시기간상 수업반은자율 유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측은 그 이후에라도 수업반은 학생은 유급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학교측과 문교부의 입장, 또한 서로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유급선별기준과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2학기 등록이라는 시기를 노려 일방적으로 사태를 대응 무마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세종대 학자부의 주요골자라고 한다면 '민주적 총장선출'과 '대학발전위원회의 합법화'로 나눌수 있다.

총장선출은 교수5인이상 추천을 받은 후보중 학생5인 노조5인으로 구성된 '총장선출 여문수위원회'에서 동의한후 전체교수회에서 적선으로 1인 선출하여 재단이 승인

하는 안과, '총장 후보추대위원회'(교수6인, 학생3인, 직원노조3인) 조교회의2인, 대학원 총학생회2인)에서 추천받은 후보들중 총장후보를 확정하여 전체교수회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식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재단측과 현 이종화총장의 무성외한 태도로 아무런 협상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대학발전위원회(이하 대발위)는 재단과 각처장중 4인, 직원노조4인, 교수4인, 학생4인으로 구성, 그림에 4개의 소위원회(교과과정, 장학, 제



◇경력이 상주하는 세종대 진정한 자주화의 날은 언제.....

유급조치 미결, 학사일정 거부로 맞서 민주적 총장선출 합법화 투쟁계속

무, 학칙)을 두고 총장을 위원장에 두고있다. 그러나 이 '대발위'는 89년 문교부감사때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발위의 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그 이후 대발위 중심으로 학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두가지가 세종대 학자부의 큰줄기라 하겠다.

또한 지난 8월21일에는 '세종대 학원민주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대학원에 백낙진, 김진균, 고은, 신정림씨등을 두고 국민연합, 전진권, 전국교수협의회,

전교조등이 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 9월3일부터는 단식투쟁이 돌입, 6일부터는 노천철야단식을 할 예정이다. 5천이라는 그 많지 않은 수가 기나긴 투쟁속에서도 추호의 격이 없었던 것은 간부들의 탁월한 능력도 아니요, 그렇다고 일반학생들의 의식수준이 월등히 높아져서도 결코 아니었다. 재단과 학교측의 비민주적, 비인간적인 학생들에 대한 처사가 학생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하고 일반학우, 간부학우들이 똘똘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학원자주화에 있어서는 우리 세대에만은 너와 내가 할일이 따로 없었으며 운동권, 비운동권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한학우의 말을 들으며 진정한 해방세대의 앞날을 기대하며 동학의 학자부를 다신한 생각에 본다.

(최윤욱 기자)

“세종대 문제는 모든대학의 문제”

인터뷰

서충현 대책위원장
송규봉 군



설정한다던가? —우리가 사회가 미국과 독재권력에 예속되어 있는만큼 우리학원내에 생활주변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

학자부는 예속·독점에서 탈피하는 것 시민대책위 꾸려 지지투쟁 강화

은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자주는 예속과 독재권에 대한 자주성 실현이여야 합니다. 학원자주화의 영역이라면 우선 학문사상의 자유로서 자주·민주·통일 교육내용의 성취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경제복합적 측면과 함께 제도적 장치마련의 자주화를 들 수 있겠습

니다. —학원자주와 투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나? —학자부는 정치투쟁과 달리 계속적이고도 눈에보일수 있는 성과물들이 적음으로 인해 장기적인수령을 일반학우, 지도부 모두 약해지기 쉬운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수를 과단위부터 결속을 다지는 것들이 중요하며 세종대의 경우는 간부들이 못지않게 일반학우들의 결속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부에 대해 어려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에 세종대의 문제를 바로 나의문제, 내학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드러나는 개정사립학교법의 실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8월16일 개정사립학교법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로 통과, 4월7일부터 법령 제422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근거해 재단에서는 학내인 사업부를 담당할 직원을 두었고 장기적으로 재단구조개편을 꾀하고 있다.

개정사립학교법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과 함께 단원안을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에 청원한바 있고, 전교조에서는 51만여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작업을 실시, 단원안의 국회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강행처리하게된 것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89년 중앙정국이라 민주개혁을 외쳤고 금년 1월에는 민자당의 탄원으로 권력의 재편을 이뤘고 민중운동전반을 탄압하고 있다. 둘째, 교육계별과 독재권력의 교

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한다)함으로 그간 각대학에서 확보한 총·학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있다.

또 재단이사회내 친인척비율을 2/5로 증가시키고(21조2항), 그동안 금지되어온 이사장의 타학교 법인 이사장을 허용했다.

한편 사무직원 임명권을 법인에 이관시켜(70조2항)각급학교소속 사무직원을 학교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사무적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재단의 보조세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세제, 기존대학내 정계계열위원회에서 하던 교수징계를 관할정(문교부)별로 설치한 위원회에서 정계계임을 하도록해 문교부의 사학자율권 침해지배를 드러냈다. (67조) 또 교수평의회설치(26조2항)대 학교육기관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 교수평의회를 둘수있다)와 예·결산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현재 평교수협의회와 교

유이 헌신적책임 내면저지고 있다. 현재 교과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자부와 부당인사철폐를 요구하는 직원노조가 함께 다가를 민주총장선출에서는 개정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이 일언도 못하게 학원을 지켜내고 학원자주화투쟁으로 대치해야 할것이다.

반역사적인 민자당이 출범한후 국민들의 반발속에서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정된 내용에서 보듯이 재단의 권한확대, 교수자율권 무시, 대학자치권무시를 통해 헌정권의 학원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음모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재단의 무절제한 기업성을 조장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릴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번 개악과정에서 사학계별과 정치권력간에 정경유착관계에서 나타난것처럼 대학의 자율이 지배이데올로기 창출과 권력의 지배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사립학교법의 제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수 있다.

첫째, 교직원의 임명권을 재단에서 총학장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총학장직선 사실상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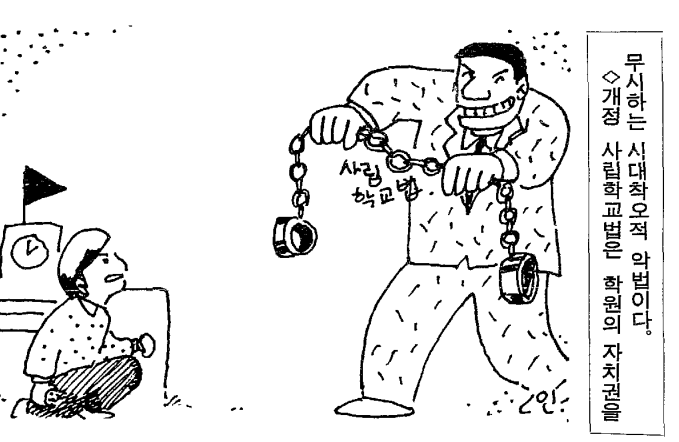
육민주화운동단원이 노골화 되었다.

세제, 교육관계자들의 민주화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반동적인 교육기관의 책동으로, 국민들의 교육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조건으로 작용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지난 4월7일 '개정사립학교법 공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를 보낸 한지않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담화에는 "6·29선언이후 사회전반에 정착되고 있는 민주화와 진화화의 정신에 따라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해 사학이 자율성



일방적 직원인사등 해악드러내 재단의 족벌 경영과 기업화 목인

을 신장시키고 교원의 신분보장장치를 통해 교직의 안정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의 뜻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살펴보자.

첫째, 총·학장이 교수를 임명하던것이 재단이사회에 교수임명에 대한 전권이 부여됐다. (53조 2·3항)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권을 학교법인의 정원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총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또한 명예퇴직교수제(60조3항)정년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본인이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이나 해직의 방편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둘째, 재단이사회가 총·학장 임명권을 전면장악(53조1항)사립학교의 장은 당해학교를 설치, 경영하

수협의회 활동을 무력화시켜 교수신분을 학교법인이나 국가의 지배하에 두려고하고 있는것이다.

구체적인 조항에서 살펴보면이 개정사립학교법은 교육주체인 교수·학생·직원을 위협하며 학원의 족벌경영과 기업화를 꾀하며 대학의 자치권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

88년 시작된 본교의 학원자주투쟁은 학원에 대한 정권의 지배를 모를 끊어버리고 교수·학생·직원을 학원주체로 세우려는 불투명한 시적이었다.

학문·사상의 자유쟁취를 위한 교과과정 위원회와 올바른 생활문화운동전개에 대한 학생복지위원회등과 함께 89년에는 총장선출을 위한 후보공천회를 통해 민주적인총장선출의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금, 교수공채와 직원인사가 총장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고 교과위원내

둘째, 재단에게 부여된 총학장 임명권은 승인권으로 바뀌어야 하며 학교장은 교원자치조직에 대한 선출과 학생자치기구의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

세제, 교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전문노동자인 교원의 국민기본권권 권리이므로 재단의 여지가 없다.

이외에도 여러 독소조항들은 폐기내지 재개정해야 한다. 학원에는 교수·학생·직원이 합의한 학원자주화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

세종대, 조선대, 경기대를 비롯한 남한사학들은 스스로의 자치권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자주화투쟁은 헌정권과 재단의 학자부 패기용모와 학원 지배의도를 분쇄하고 사립학교법철폐를 통해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학을 이룰것이다. (남철우 기자)

등록기간 연장안내

1990학년도 제2기분 학부 재학생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납부기간: 1990년 8월24일(금)~8월31일(금)까지

2.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학생
캠퍼스		
공통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으로 감액처리된 고지서 포함)
서울 캠퍼스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①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 ②복학생 및 재입학생
경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3. 기 타

- ①등록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총무처장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에게!

학자금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용자제도로써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 매월소정 납입일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월 납입
장기학자금	85.8.1 이전 대출과 85.8.1~89.12.21 경과후 3년 이내 89.12.22 이후 대출과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월 납입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부터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지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을 오용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문 감안 하하여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책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대학교 새마을연구소 (267-8131 교2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과 국가발전

芝堂 李秉東박사
華甲기념 논문집

농촌진흥의 길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한 신 농군교수 李秉東박사. 그의 학력을 기리는 이 논문집은 앞으로 농업경제학 뿐만 아니라 각 전문분야의 학문연구에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며...

도서출판 청년문화
*비매품

농업이야말로 민족생존을 위한 민족산업임을 선언한 연구서!

농촌개발 전략 연구

李秉東교수 지음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개발사를 10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60년대는 여명기, 70년대는 새마을사업 전성기, 80년대는 붕괴기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농촌을 황폐화하고 있어 농촌의 재평가 작업이 절실한 때이다. 아울러 농촌개발이 국제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자생력과 대응력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바로 농업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값 10,000원, 형설출판사

내각제 개헌반대에 주력할때

하반기 정세분석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코르비츠의 신사고 정책에 의해 88년부터 본격화되었던 국제정세의 변화는 전제개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긴장완화, 평화공존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의 세력재배과정은 철저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며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제3세계 민족해방전쟁은 그 어느때보다 자주노선을 더욱 뚜렷히 전제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한반도 정세가 미소를 중심으로한 양극화가 냉전적으로 대치하며 남북의 역관계에 있어 북한이 정치적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면, 88~89년을 거쳐 90년에 들어서 세력관계의 변화가 뚜렷해진다.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주변세력의 대결구조와 남북한에 대한 배타적 지지구조로 소련·중국의 실리를 위한 미국·일본권에 대한 협조로 되고 있다는 것과 아직 남북한의 통일운동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현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점차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정권의 7·20선언은 미국과 현정권의 북방정책 및 대북정책은 한편으로는 지역안정화와 내각제개헌을 위한 유리한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조정되어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분단체제의 합법적 고착화와 공세적대결의 의도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하반기 남북관계의 전제전향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교차승인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부각시키고 군국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가장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제기된 '자유양대·전면개방'은 남한당국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자칫 통일운동의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실제 무기가 실리지는 않았고 남한정권의 반통일정책을 폭로하는 문제로 국보법철폐, 통일인사적합을 제기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현정권 소련·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유도를 위해서도 남북고위급회담에 적극대응하지만 군국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현정권은 9월 UN총회에서의 UN단국가 입장에서 북한을 자극하고 소련·중국을 당혹하게 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UN가입의 정치작업은 영국등에 특사를 파견하는등에 주력하려 한다. 올 하반기에도 남북한 상호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민족·민중세력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2. 국내정세 동향

(1) 국내 정치 정세

당면, 정치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은 상반기 투쟁을 전개하며 나타나는 비와 같이 92~93년 제3차대선을 둘러싼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로 이를 둘러싸고 각 세력의 이해관계와 힘이 첨예하게 교차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현정권은 식민지 패소체제의 안정적개편과 원만한 자본축적을 보장받기위한 총독적 산업구조의 조정, 분단체제의 공세적, 합법적 고착화를 중점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자당창당을 1단계로 기반적 보혁구도의 조정과 이를 통한 내각제(혹은 변형인 의원집정부제)로 장기집권을 모의 실현이 핵심적 목표이다. 상반기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임시국회의 폭력은 이를 위한 전조적인

유지, 확대하며 권력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일정한 부담은 있지만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끊임없는 타산을 계산하고 있다. 노태우·김대중회담의 결렬, 야권 총사퇴, 보라매정치, 야권통합논의의 본격화등 최근의 정세는 반민자당전선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우투쟁과 야권통합의 성과에 기초하여, 내각제하의 지지력, 총선으로 타협하려는 보수야당의 의도에 대해 투쟁을 통한 전진의 원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2) 국내 경제 동향과 민중세력의 주체적 조건

경제적으로는 우르파이라운드, 중동시대로 인한 석유값폭등 등 국외적조건의 악화로 외채지배하의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빠트리고 있다. 우르파이라운드 협상을 지켜보던 국민대중과 농어민은 민족의 생존을 외세에 팔아먹는 정권의 매관성

생존을 지키려는 민족·민중의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무마시키려는 미국과 현정권의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만, 이제 청년학생·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민족·민중세력의 결집정도와 결의 정도를 알아 보자. 청년학생은 지난 상반기동안,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의 기치를 내걸고 분일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을 통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과정에서 학생회의 중추적대세를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노동자들은 미국과 현정권의 전노협과 단위노조파괴속에서 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조합원의 많은 수가 탈퇴한 상태에서 불가상승률 13%에도 못미치는 8.9%의 임금인상률에서 어려운 생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실화와 함께 포항제철 모토를 사임장에서 민주노조집행부가 당선되는등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이 고양될 전망이다.

3. 하반기 정세 전망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반기 정세는 미국과 현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가 9월정기국회를 중심으로 노골화되고, 경제위기에 있어서 생존권을 억압받는 민중들의 격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세에서 민족민중운동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기위해서는 올바른 투쟁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내각제 개헌반대와 장기집권유보로 저투쟁을 정치적 집중점으로 설정하고, 이를위해 경제, 내각제개헌음모에 대한 폭로선전 투쟁, 농민투쟁과 내각파괴국보법철폐 투쟁과 투쟁, 민중운동등 민주인권투쟁에 대한 탄압저



△하반기에는 미국과 노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가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UN단독가입 움직임 제지해야 경제위기로 국민-정권간의 격돌예상

것이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한 미국과 현정권의 계산은 결코 순탄치는 못할 것이며 많은 난관-즉, 민자당내 각계파의 내부수습, 야당의 복시적 등의 확보, 북방정책이나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민생문제의 해결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미국과 현정권은 내각제개헌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않음에 내각제개헌을 위한 여건조성(사전 여론조작,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분열과 탄압, 정치정세의 희석화와 상충력 문제의 국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보수야당의 경우, 체제개편국면에서 어떻게 그들의 세력을 신장하고 권력에 유리하게 근접(혹은 참여, 장악)하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평민, 민주야당은 지지세력 내각제의 복시적 등의하에 총선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과 배추잡이 비싸면 오이잡지나 열무잡지를 담그지 그러하듯 당국의 무지에 분노하고 있다. 총통정세로 인한 석유값폭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값은 90%이상 급등시켰고, 이는 곧, 국제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국내 나프타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중진과정에 따른 중시안정기금의 투입으로 총통화증가율이 88년 이후 89년에서 20%를 넘어설것으로 보여 경제위기는 더욱 극박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공화국의 정치위기로 전제되고 있고, 이는 지방도지사를 조차 '농어민의 강령은 불만이 아니라 저항의 의식'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하반기는 민족·민중의

지투쟁 내제, 의원직사퇴와 관련된 국회해산, 즉각총선요구투쟁을 내용으로 싸이 나가기한다. 민중생존권등 민주인권투쟁 및 대중운동조직 지지운동투쟁-정치투쟁전선의 힘 있는 형성과 돌파로 대중투쟁의 공간을 확보하고 전투적인 대중운동형상을 얻고, 결집하여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정치투쟁역량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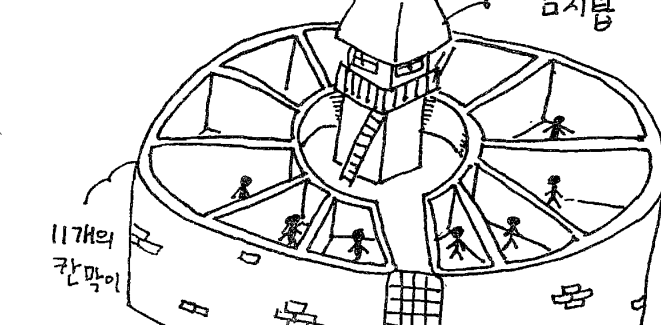
자주·통일투쟁의 지속적 전개-단순한 자주교류만이 아니라 평화군축등의 정치 군사적문제를 구체화하여 대중적접근을 제고하며, 유엔단위국회가입 국보법철폐 통일인사적합요구 등을 통해 현정권의 반통일정세를 폭로, 자주민주투쟁 투쟁의 중추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세 용 (경상대 무역학과)

“죽든살든 내버려둘라”식 재소자 인권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3월17일 청주교도소에서 집행방에 수감중인 재소자 심재민(27)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의무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서 “죽든 살든 내버려두라”며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씨는 그간 재소자 처우문제로 싸워오다 번을 당했는데,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판정되고 말았다. 재소자 인권문제는 지난 89년 북한을 방문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익환 목사의 쇠약해진 건강상태가 울로 알려지면서 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밖에 서울교도소 14등 상층6방에 수감중인 박봉수(43)씨가 만기 17일을 남겨둔 채 갑자기 사망하는가 하면, 지난 5월16일에는 교도관들의 집단구타로 일반수 김대영, 황원준씨가 각각 코뼈와 갈비뼈, 인팔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인신을 구속하는 가문의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주기를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재판진행에 기여하는 데 있다. 또한, 전교협 협회의 집행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이



투여해야 하고 재소자들도 하여금 진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사회복귀란 구속이전의 재소자의 온전한 육체와 정신의 건강보존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들어 위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재소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재소자들은 집결, 신문구독, 가족좌담회등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신검열, 교도관들의 폭행·폭언, 열악한 생활환경등으로 ‘사회복귀’는 커녕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병들어 가고 있다. 한편, 스스로 ‘의료권을 지켜내겠다’

잠안재우기·강제급식 행형 옥중투쟁도 만만치 않아

다는 의지로 서울교도소 옥중투쟁위원회 재소자들이 조상한 의료실태 보고서를 따르면 재소자의 건강상태는 하루 30분 가량의 제한된 육의운동, 0.75평의 밀폐된 사방생활, 화장실 투쟁조차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 정신적 압박,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치과나 안과등의 질환에도 최소한의 응급조치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수용자들에게는 대책이 없으며 정신질환을 비롯한 특수한자들은 전문적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독거방, 집행방에 수용함으로써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의료전에 있어서 서울교도소 의무과는 의무과장 1인과 책임자의 수가 아닌 군간호사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정바사’라는 사당과 다수의 교도관에 의해 운영되고

높은 자리에 앉은 교도관들 덕분에 교도관이 터지고, 통풍구, 강제급식, 잠안재우기, ‘관’같은 집행방에 갇히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탄압이 거세질수록 재소자와 가족, 사회단체들의 옥중투쟁도 만만치 않다. 각 교도소마다 사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불 요구하며 투쟁의 불길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화실현 가족운동 협의회’에서는 양심수 후원을 만들어 장기수감형치금을 넣어주고 한달에 한한씩 편지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갇힌자의 손과발이 되어 뛰어나는 어머니들과 함께 기필코 올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생취해 내어 갈며 있는 모든 양심수들에게 건강하 하늘을 안겨 줄래다. (김영대 기자)

교직허용차별

“이 상치가 이틀이 안에 종교교직과 정치교직을 설치할 것을 맺어 길었던 투쟁을 마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학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부총장실 정거 135일째를 맞은 지난22일 경주캠퍼스 정거원에서는 학생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학과 비상학생총회가 열려 종교교직이수과정 설치를 요구하며 학과장을 비롯한 8명이 학사학과 사법학을 가졌다.

지난 2월3일 불교학과 교직과정이수과정은 91년 1학기부터는 경주캠퍼스 불교학과가 제의된체 서울캠퍼스 불교학과에 한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불교학과는 “경주를 제외한 교직과정은 서울 캠퍼스의 지역적, 종교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방캠퍼스를 차별하는 처사가 분명하다”며 지난 4월부터 인문대 교학과 정치학과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울캠퍼스 실무처와의 3차례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종교 교직의 문호가 1개교 1개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문교부가 관할하는 것이기에 학교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내내 답변을 회피해왔다.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학생들은

“뜨거운 여름을 에어컨도 없는 부총장실에서 투쟁하느라 지친 몸이지만 90년 문교 평가시기에 즈음하고 2학기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지난 27일 이후로 단식투쟁과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불평등은 불교학과에 국한되는 것만 아니라 경주캠퍼스 전체, 지방캠퍼스 전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경주캠퍼스 불교학과는 이같은 교직이수과정의 차별은 서울·경주가 한화교라는 말의 허구성과 문교부의 불교정책의 희석양이라 볼 수 있다.

열식식을 마치고 치료를 하는 불교학과 학생의 필모습을 보여 하나하나 동공의 시대는 언제쯤이 나 올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형숙 기자)

SHARP

귀하의 꿈과 미래를 샤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계, 교육, 직장, 건강, 오락, 여행, 통신, 금융, 환경, 안전, 보안, 의료, 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조림업, 사냥업, 채취업, 기타

고기능, 고품질, 저가격의 경제적인 심미 일체형 전자디지털

PA-3200H

- 1000, 2000, 3000, 4000, 5000 Memory (PS) ● BOLD/Auto Centering/Underline/It ● Backspacing (1, 900) ● Paper Index/Rev Index ● Micro
- 1000, 2000, 3000, 4000, 5000 Memory (PS) ● BOLD/Auto Centering/Underline/It ● Backspacing (1, 900) ● Paper Index/Rev Index ● Micro

사프만의 친절하고 신속한 A/S제도 전국 서비스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 서비스의 기초

사프전자산업(주)

EL-5150

완벽한 최신 초강력 고품질 계산기

- 1000, 2000, 3000, 4000, 5000 Memory (PS) ● BOLD/Auto Centering/Underline/It ● Backspacing (1, 900) ● Paper Index/Rev Index ● Micro

EL-9000

다수식에 따른 자동 그래픽

EL-5125

2라인의 공식과 해답을 동시에 표시

EL-556

독특한 계산

EL-5030

997개 공식메모리

'90 최신

TOEFL 600 전략시리즈

대학원 진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준비는 이 6권으로 완결!

전6권

- 1권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총/국문/4,000원 (권2)
- 2권 **LISTENING 전략** 유정원 총/국문/4,000원 판매중!
- 3권 **문법/STRUCTURE 전략** 권기영 총/국문/4,000원 판매중!
- 4권 **WORD POWER 전략** 박정일 총/국문/4,000원 판매중!
- 5권 **READING 전략** 박정일 총/국문/4,000원 판매중!
- 6권 **IDIOM 전략** 정영일 총/국문/4,000원 판매중!

TOEIC 800 대책시리즈

취직과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형 최신!

전6권

- 1권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총/국문/4,000원 판매중!
- 2권 **LISTENING 대책** 유정원 총/국문/4,000원 (권2)
- 3권 **문법/STRUCTURE 대책** 권기영 총/국문/4,000원 판매중!
- 4권 **WORD POWER 대책** 박정일 총/국문/4,000원 판매중!
- 5권 **READING 대책** 박정일 총/국문/4,000원 (권2)
- 6권 **IDIOM 대책** 정영일 총/국문/4,000원 판매중!

전국 서점에서 절찬판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 (대부)834-6787 274-0509 (영주)275-5258

제국주의의 아랍분할음모 지녀

한손에 칼, 한손에 코란
이슬람교 아랍세계는 열사의 화
오리처럼 거친 현대사를 걸어왔다.
찬란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우고 오
스만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이 땅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여타
제3세계 국가들이 걸어왔던 숙명적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었다.
연일 중동사태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에 따른 미국과 이라크의
대결구조는 더욱 심화되었고 장기
화될 전망이다. 사실 중동이 우리
에게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
니다.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69
년 리비아의 가다피 혁명, 79년 이
란의 이슬람혁명, 이란-이라크전
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팔레스
타인의 투쟁 등 수십년간 중동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투쟁들은 하
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
은 바로 반제국주의 투쟁과 반사
주의 투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영국을 대신하여 중동을 지배
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아랍
민중들은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아랍역사는 바로
반미투쟁사였기 때문이다. 이슬람
의 중동, 끝없는 분쟁의 씨앗은 과
연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중동 각국의 이념적 실천적 측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 40여년 이상 세계정세를 뒤
흔들어 온 중동분쟁의 뿌리는 팔레
스티나 문제에 있다.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2천여년전에 없었던 유
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1948년 건
국됐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스라
엘의 건국은 이스라엘의 승인을 풀
어주긴 했으나 그것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서 살아온 아랍민을 쫓아
내고 실현한 꿈이었기 때문에 깊은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중
동분쟁은 2천년이나 묵은 연고권을
내세워 땅을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 사이의 싸움은 결코 아니었다.
영국을 전두로 한 제국주의 열
강들은 하나의 아랍제국을 걸기
가 져서 놓았고 그 후 영국의 대역
으로 등장한 미국은 이러한 비극을
다시 심화시켜 놓았을 뿐이다.

중동은 미국에게 있어 군사요충지
와 석유공급의 안정화라는 측면
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 미
국은 1947년 3월12일 트루만 독
트린을 시발로 하여 중동에 직접적
으로 개입했다. 그해 4월달의 군사
, 경제 원조를 터키와 그리스에
제공하였고, 1948년 1월에 238백
만달러를 동원한 목적으로 원조를
여 3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
다. 1979년 2월 이란의 이슬람혁
명, 동년 12월말 소련의 아프가니
스탄 침공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쇠
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양에서의 미해군력 증강
과 페르시아만 지역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신속배치군 창설 및 오만, 케냐, 소
말리아와 작각 해군,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였
다. 또한 1980년 1월23일 가다피
통령은 "페르시아만 지역을 지배하
려는 어떠한 외부노력의 시도도 미
국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이라크사태로 살펴본 미국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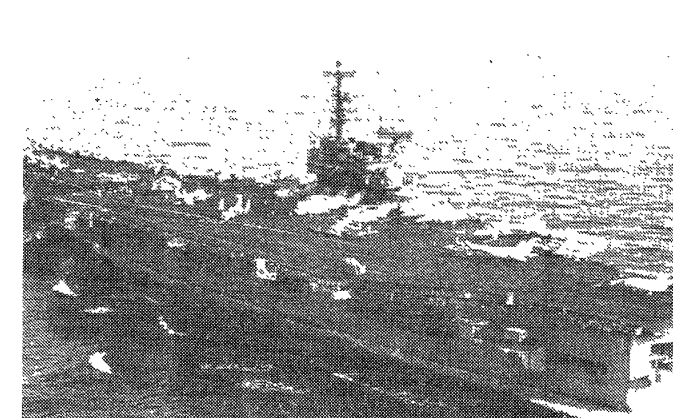
간주할 것이며 이러한 공격은 군사
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
단에 의해 저지될 것이다"라는 요
지의 카터독트린을 발표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아랍민중들
을 반발시켰고 반미감정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했다. 1983년 10월
25일 미국은 그레나다를 무력으로
침략했고, 1986년 4월15일 미공군
전투기를 동원 리비아를 공격했다.
1988년 7월3일 미국해군함정은 이
란 군함에서 미사일로 2백90명을
태운 비무장인간자객기를 폭파시켜
달살자 전원을 사망케 했다. 미국
의 무서운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89년 8월14일 미군
전투기 F14는 저중공 상공에서 리
비아 소속 전투기 2대를 미사일로
공격, 격추시키고 말았다. 단지 화
학무기 공장건설 반대만 명분하에
당시 리비아인들은 "화학무기 공장
이 아니라 의약품 공장이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계 언론인들

레스타인을 해방시키며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없애고 전 아랍세
계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
다피의 정치철학이란 '이슬람정통
주의(Islamic Fundamentalism)'를
뜻하고 그의 어록인 녹색(Green
Book)에서는 '제3세계아랍'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이론은 자본주
의적 물질숭배와 공산주의의 무신
론을 모두 배격하는 제3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것이다. 세계와
인간의 창조자인 신은 이슬람의 믿
음과 불가분 관계에 있고 신을 숭
배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제3세계이
론을 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슬
람교, 기독교, 유대교 등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국가와 종족의 차
이를 넘어 모든 문제의 중심은 인
간이고 종교는 일관적인 방향만을
제시해 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리비아는 경제
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소
유'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설을 이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
한 당면 투쟁목표는 아랍민족의 통
일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소
인 제국주의 세력과 시온주의 세력
에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에 그들의
하수인인 친서방 정권에 반대하
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바이스당의 이념과 투쟁목표로
볼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친서방 괴뢰정권 타도라는 명분을
가진다.

이밖에도 반팔레비 투쟁과 반미
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이슬람혁명을
일으킨 이란이슬람공화국이 있다.
이슬람의 전통과 코란에 입각하여
신정주의(Velayat-e Faqih)의 개
념, 즉 '파기(이슬람 법률전문가)
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였다. 이
신헌법은 전체 이란인들의 99.5%
압도적 지지를 채택되었다. 이란인
들은 "미국은 악마이다. 미국에서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반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중동에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가 선행돼야 아랍문제...아랍의 힘으로 해결가능



◇중동사태에 대한 안보이사회회의의 무력 사용이 결의되면서 이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을 불러 현장을 공개하겠다고 제
시했었다. 리비아의 목소리를 외면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미국은
사실상 세계 최대화학사의 핵무기와
화학 살상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
라가 아닌가? 그런데 어떠한 권리
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서 '화학
무기 공장건설'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 심지어는 다
리적인 공격을 가했는가?
리비아는 공식 국명이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공화국'이며 반제
국주의, 반식민주의를 주장하고 있
는 국가이다. 1969년 9월 현 국가
원수인 무아마르 알 가다피(Mu
ammar al-Qaddafi)에 의해 부활
쿠데타로 '이드리스'왕정을 폐지하
고 공화제를 수립하였다. 가다피의
정치철학은 대내적으로는 '아랍사
회주의'와 '아랍민족주의'를, 대외적
으로는 '아랍의 통일'을 내세웠다.
그러므로 가다피의 공화국적인 목표
는 제국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팔

측면으로는 반중정권을 확립시키는
민중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접민주주
의를 구현시켰다. 이 제도는 리비
아 민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민중들에게 지
지되는 반맹은 미국의 진실이 무엇
인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다음에
는 이번 중동사태를 일으킨 이라크
에 관해 살펴보자. 이라크의 집권
당인 바이스당(Baath Party, '사회주
의 무함마드')의 이념적 실천적 측면
에서 볼때 이라크는 이번 침공이 정
당한 것이었다. 바이스당은 1940년
시리아인 민족주의자 미셸 아플라
크(Michel Aflaq)와 무슬림인 비타
르(Salah al-Bitar)에 의해 창당되
었다. 바이스당은 이슬람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두었지만 아랍인을
강조함으로써 범이슬람운동이라기
보다는 아랍주의를 내세우는 범아
랍정당이다. 바이스당의 이념은 아
랍민족의 통일, 사회주의, 자주독립
에 원칙을 두고 통일아랍공화국의 건

서 '반미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결코 항복치 않을 것이
다. 승리할때까지는 혁명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77일간의 항전 끝
에 베이루트에서 철수하면서 인접
아랍국가들로 뿔뿔히 흩어지면서
표현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전사들의 절규이었다. 그들은 통한
의 유랑길에 오르면서 반드시 조국
땅에 돌아온다는 결의에 찬 몸부림
을 쳤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 땅은 모세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으로 남아
있다. 이번 중동사태에 대해 미국
은 쿠웨이트로부터 즉각적인 무조
건 완전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
지만 20년이 넘게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
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
다. 지금의 중동사태는 이라크와
미국간의 전쟁이 아니다. 요르단
리비아, 수단, PLO 등지에서 격화
되는 반미투쟁은 이러한 사실은 중
명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곧 미제
국주의와 아랍민족주의와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즉각적인 패배 철
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국
주의 열강들은 중동에 대한 분열책
동과 부당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
다. 아랍민중들은 외세의 간섭을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 미국의 제
국주의적 침략행위를 더 이상 용납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 달 승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연구소)

U·N의 허와 실

U·N안보정장이사회에서는 지난
25일 이라크에 대한 '최소한의 무
력사용'을 허가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25일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이 있은뒤 이번 조치는 다국적군
파견과 그에 따른 무력사용을 국제
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
이번 결의안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군을 파병했던 조처와 66년
과 77년사이로디지아사태때 영국에
무력을 사용토록 부여했던 조치와
는 달리 이번에는 상임이사5개국이
무력사용에 찬성한것은 강대국들의
이해변화를 보여주는것이다.
이번 중동사태를 바라볼때 미국
의 대중중지배전략을 간파할 수 없
다.

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의도는
분명하다.
유럽공동체, 유엔상임이사국등
적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을 인식하고 항상 중동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노력해 왔다. 또
미국은 세계 신데렐라 분위기와 군
축등으로 미국 최대산업인 군산복
합체의 위기를 외부로 표출할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과 선진서방국들은 이같은
주목관적 조건속에서 유엔과 같은
공식 합법화된 기구가 요구되어졌
고 이번 중동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도 이와같은 입장에서 전개된
것들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과 영국에
의해 유엔이 성립됐고, 한국전쟁에
파견된 '유엔군'중 대부분이 미군이
다.

여하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매
달리는 한계를 가져온다.

한반도의 분단에 있어선 미·소양
극체제의 반영에 있고 유엔이 이를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오는 9월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 유엔분
리가입과 남북교차승인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중동사태를 보며 유엔의
발을 쓴 강대국들의 이해와 실리추
구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 역시 세계 강대국들의 이
해가 심하게 얽혀있는 지역으로 언
제 중동과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가
손을 뻗힐지 모른다.

유엔내에서 서방강대국에 대응해
제3세계국가들이 연맹을 이루어 제
국주의의 침략에 공동 대처하고 유
엔내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한국정부에서 외교정책으로
삼았던 미국등 강대국 중심의 외교
에서 탈피 해아하며 제3세계와 공
산권에도 외교를 조장해 한반도가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에 이용

미국, 유엔의 탈쓰고 실리 추구
제3세계 동맹외교로 공동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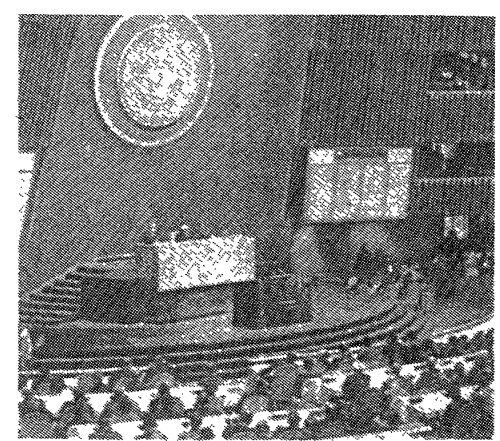
미국등 다국적군은 비록 '유엔군'
은 아니지만 유엔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와 명분하에 따라 이라크에 군사
제재조치를 강행할수 있게해 '유엔
의 이름'으로 강대국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동은 아랍민족의 이해관계와
제국주의의 지배전략이 복합된 '세
계의 화약고'이다.

2차세계대전후 식민지 지배아래
있던 아랍민족들은 독립을 하면서
영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이 그외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경제제전 때문에 더 많은 석유가
필요했던 선진국들은 제국주의에 대
한 아랍민족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아랍에 쿠웨이트와 같은 친미보수
세력을 지원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이라크가 쿠
웨이트를 침공하자 유럽공동체의
석유보이콧, 안전보장이사회의 경
제봉쇄조치를 취했고 소련도 미국
과 공동성명을 발표, 이라크의 행
동을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침략행
위'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을 중심
으로 다국적군을 구성, 중동에 배
치하고 미국은 사우디내 군사기지
사용을 허가받기도 했다.

이번 중동사태에서 유엔을 이용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에 이용

있었다. 유엔의 활동은 유엔의
강대국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
나 확인해진다.

한편 유엔 전문가인 국제식량
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
M·F)등에서도 나타나듯 강대국들
의 경제이익에 따르는 경제정책을
이 입안되고 집행되는것 불수있다.

특히 실질적 최고기관인 안전보
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
권행사가 강대국 상호간의 합의가
아무되지 않는한 세계평화에 기

동일될수 있는 세계정세를 유도하
는것이 필요한 것이다.

유엔이 강대국들의 이해와 요구
에 부응해 세계지배질서 구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에 있어 제국주의의 음모를
분쇄하는것은 핵무기철거, 주한미
군철수등을 통해 민족의 자주적의
사에 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다.

(남철주 記者)

학술신간

[비밀일기]
김현종지음, 노동문학사 펴냄.

이 책은 현대중공업 노동자인
필자가 지난 4월23일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과 끌려와
투쟁에 참가하면서 투쟁의 과정
과 내부의,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정권의 탄압양상을 날카롭게 기
록한것으로 1백여장의 사진과 함
께 곁들여져있다.

가슴으로 만난 평양
문익환지음, 삼민사 펴냄.
이 책은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문익환목사가 쓴 상고이유서
이다. 문목사는 서두에서 "다
만 후세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남겨야겠다는 심정에서 왜 평양
에 갔으며 누구를 만나 무슨 이
야기를 주고받았고 무엇을 느꼈
는지 객관적으로 쓰려했다"고 밝
히고 있다.

▶박스·앤젤스의 동업론
박스·앤젤스지음 김성현옮김
이출판.

박스와 앤젤스가 동업론제에
관해 저술한 64년의 논문은 유
명 책이다.

여기서 다루지는 주제는 노동
운동, 자본축적과 농민분배, 토지
국유화문제, 농민운동의 주체
정문제등으로 농민문제 연구자에

게 중요한 자료가 될것이다.

▶청년학생론
레닌지음, 문신인역, 두레
퍼냄.

레닌의 논문, 편지, 초고등의
문헌을 청년학생을 주제로 한 것
을 엮은것이다.

'러시아혁명과 청년학생운동',
'청년 동맹의 성격과 임무', '사회
주의자의 청년학생'으로 짜여진
이 책은 청년학생들에게 유익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역사
비평사 펴냄.

이 책은 한국전쟁에 관한 사회
과학적 해석을 기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 졌다.

現代中國論

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 엮음

70년대말부터 적극적으로 문화를 개방해
온 중국사회의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책.
중국인 특유의 '중화상상'과 오늘날 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본질을 설명했
다.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한 경제현황, 외교노
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으며, 문학·예술·문
화일반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로 중국사회의
발전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외성출판사 / A5신 / 350면 / 7000원

韓國文化의 뿌리

金熙圭 지음

'나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
을 우리 전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찾고자 한
책. 10가지 주제를 놓고 벌인 3인의 대담형식
으로 엮여졌다. 과거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활
했었으며 그 특색은 무엇이었는지를 생활양식
과 문화양식에 대한 점검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한국인의 의식속에 자리잡
고 기능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조각 / A5신 / 224면 / 400원

다시 불러보는 벚들

박선옥 지음

80년 5월의 '벚들'을 역사적 原形으로
삼아 그 역사성을 풍부한 서정성 속에 담은
60년대대중 젊은 시인의 제2서집. 우리 문학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지향적 서정성
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특유의 건강함과 서적
활력이 돋보이는 작품
실천문학사 / A5신 / 178면 / 2000원

나래기획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TOEIC
강좌개설
(10월 10일)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Word Power ●일본어 초·중·고급
●TOEFL L.C ●영어문해·독해·회화·일본어 초·중·고급
●Voc 22,000 ●Time ●고급회화
●영문법 연구 ●영어실용회화 ●일본어 독해
●성문 종합영어 ●일본어회화 ●NHK실용회
●AFKN 회화 ●한국어회화 ●한국어 초·중·고급
●표준어연구 ●한국어회화 ●한국어회화

개강 9월 3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5081~2

이 알찬 결실이 있기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
FACE 비인회화 · 이해중생영어
EEC회화 · SBS 생활영어 · 성문기본영어
영어실력기초 · 성인기초영어
Man to Man 기본영어
성문종합영어 · Vocabulary 영어순해
Weekly Time · AFKN 청취 · L/C 청취
TOEFL · C.G.F.N.S · AFKN 통대대
학원 · JLCC 일본어 회화
일본어 문법 · 스킨 日語 NHK 청취
주력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 스페인어
프랑스어 · 스페인어회화 · 프랑스어회화
중강제일은행 맞은편 ☎ 7340-114 (대)

종로외국어학원

The Korea Herald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9월 3일

독 해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독해 철저한 분석독해

회 회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

기본영어문법,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 (일본어 포함)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학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회화/박성원 (일본어·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독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영어회화

시정

◆ 제70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 1990년 9월 5일

교육방법 :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내외로 반편성.

●수준테스트는 매월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 1일 2시간 주5일 (월~금) 수,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 미국 Harvard 대학출신 등 학력 수준의 전인 Native Speakers.

◆수업시간 ◆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무영어과 과정

●TOEFL종합반, 러시아어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퇴임교수를 만나서

반평생을 동국의 공지와 함께



俞賢穆 (예술대 연극영화과)

지난48년 본교 국문학과 재학시 '영화예술연구회'를 창설한 이후 '동국인의 한사람으로서 한국 영화발전에 기여해온 俞賢穆교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기자가 俞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俞교수는 지난5일부터 열린 한소예술교류심포지엄차 소련방문으로 조금은 피로에 찬 모습으로 기자를 맞았다.

퇴임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반세기 가장도룩 모교에

탄'등으로 최다작품 연출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퇴임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휴머니즘적 영화제작과 함께 모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겠다"며, 퇴임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는 俞교수의 모습에서 남산 코끼리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모교를 떠나며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하는 질문에 "70년대 이후 침체되는 학교를 보며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안타까웠다. 아울러 연영과의 기재부족으로 제작들의 고생하는 모습이 안스럽다"며 제작들에 대한 따스한 스승의 정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간 기억에 남는 추억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俞교수는 "연영과는 타 학과는 달리 사제간의 정이 돈독한 편이다. 강의하며, 제작들과 영화촬영을 하며 제작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며, 지난



崔 燦 有 (이과대 화학과)

"떠나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까?"하고 오�히리 반문하는 崔燦有(화학과)교수를 보며 외아래진 기자에게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떠나야 한다는 말처럼 조용히 물러나려 했지만 주위에서 가만히

靜中動의 자세로 실천하는 성숙한 대학인 되길

바두지 않는다고 작은 미소를 짓는다.

지난 50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63년부터 재직해온 崔교수는 후진양성에 전념하는 한편, 8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퇴임소감이라고 할 것이 못된다고 변변히 말하면서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밝힌 崔교수는 자못 진지하다.

84주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버텨있던 이직까지도 동학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면학분위기에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며 소중한 지난날들을 회상한다.

후진양성을 위해 나뉘대로

많은 연구논문도 쓰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지만 생각한 만큼은 기여를 못해 역부족이 아니었다는 생각한다. 퇴임후에도 동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보살펴 준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동학의 주인은 재단총장서도 학교측 인사도 아닌 학생들이라고 강조하며 학교행정정책의 모순, 재정문제, 시설의 낙후 등 기타 여러문제를 고쳐려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학생의 본분을 인지하여 선택에 비자함을 흘리면서 학문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도 아는 대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林 基 中 (문과대교수·고전문학)

선생님이 가신지 열하고도 세 해가 되는 올해, 우리는 당신이 가신 것도 오신 것도 아닌,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본래

린 진실로 삶과 죽음의 사이에 영원히 그 대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벽에, 살아 계신 초상화로 존재해 계십니다. 잠실 롯데에 남겨진 줄을 친다는, 그렇게 무상한 것만은 아닌 것이 인생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생님이 한 사대를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은 가장 참신한 언어 감각을 가진 시인이었고, 전교적 수필의 대가였으며, 민족 진영을 대표하는 비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동서 사문의 훌륭한 번역문학자였으며, 한국 제일의 훈고학적 국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계의 실정,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채 간파하지 못하는 혼돈 상태에 있는 이들을수록 대가의 반열에 서서, 당신의 업적을 모조리 채운다는 경우가 많아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와 글로써 자주 반복하셨던 '산 밑에 지나가는 뱃소리'와 '새다른 철을 하여 꾸민 新說'의 실재를 파악하고

無涯선생님을 그리며

林 基 中 (문과대교수·고전문학)

확인하는데 4반세기 가 걸렸으니, 마치 의도하듯 돌아온 탐자와 같은 우리들을 저 세상에서 어떻게 접이 보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곁에 비친 객기와 현학의 허상만으로, 선생님을 닮으려 하고 내재한 학적 진수는 깊이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숙연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학문사에서 모르는 것과 외면하는 것을 모아서 학계에 발표한 이는 선생님이 이의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 앞의 영역에 속합니다. 무엇을 모르는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무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은 역시 박학한 분이셨다는 것이 확인되고 남는 생일입니다.

이것 역시 어린 산자락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육신과 학문을 분리하여, 살아계신 학문의 초상을 우리 곁에 걸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지체는 백년의 생명을 가진 학설이란 예언이었으나, 백년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반백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계는 분명 선생님의 새로운 제자명을 진지하게 시도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동국의 문도들은 뜻을 모아 이 글을 오늘 이 계단의 향불 위에 뿌리오니 부디 幸心·點頭의 按說을 기대하며 안식하소서.

우리글 바로 쓰시다

우리말을 병들게하는 일 본말

일본의 글은 지금까지도 우리말, 우리글에 영향을 주고있다. 어느새인가 자연스레 게 배어버린 일본 글을 고치려는 노력속에서 아름다운 우리글이 되실아 된다.

①(의) >서로의 안부를 묻고난후 서로와>서로 >나의 첫번째 존경하는 분 나의>배가 >제천군으로 농활을 간 본 교학우들의 일하는 모습 >내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만민이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 모두의>모두 >②(의(의)) >정의와의 싸움에서 불의가 이겼다고 해서 >정의와의>정의와(싸워서) >한국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위해 >국가의>국가와 >일하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아이들과의>아이들과(만나기)

>국회 광주특위에서의 추궁에 대해 >특위에서의>특위에서 있었다 >추진을 통해 국민투표에서의 승리를 다짐하자. >국민투표에서의>국민투표의 >⑥(로서) >금메달을 따낸 총목으로서의 영광은 크다. >이것은 하나의 계기로서의 가지는 지닌다. >이것은 전문적으로서의 사의 권리이다. >전문적으로서의>전문적으로서 갖는 >국민대학으로서의 동국대가 가야할 길 >민족대학으로서의>민족대학인 >상식과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교양으로서의>교양이 되는 >⑦(로 부터) >의약으로부터의 자유>의 약에서 >이것으로부터의 자유>이것에서 자유를기 >공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강국으로부터의 사색>강국의 >이동으로부터의 해방>아동에서 해방되기. >마음으로부터의 연대를 표명한다. >마음으로부터>진심으로.

제자들과 보낸 시간들이 가장아름다운 추억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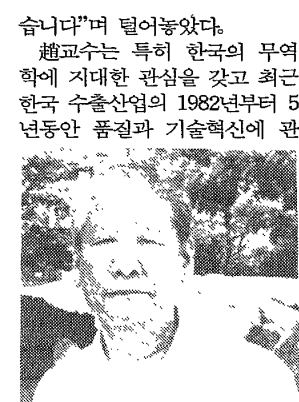
서 제자를 가르친 것이 내 생애의 귀중한 체험이며 이제 교육자의 철학을 아는듯 한데 제자들을 떠나게 돼서 아쉽다"며, 지난 17년간의 교직생활을 회상했다.

지난76년 본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부임하여 영화학회 회장, 예술인 회원, 예술대 학장 등을 맡고있고 나훈기, 이규환 등에 이어 한국영화의 거목으로 평을 받고 있는 俞교수는 지난10월 '한국영화70년-대표작2백선'에서 이범선원작 '오발

15년간 재직해온 연영과에 대한 애착에 퇴임의 시간이 다가옴을 아쉬워했다.

지난 반세기를 동국에 몸담으며 한편으로는 활발한 영화 제작에, 한편으로는 후배양성에 헌신해온 俞교수는 동국의 산 증인'으로서 동국에서 가꿔온 추억의 하나하나를 간직하려는 俞교수의 모습은 동국을 아끼는 선배와 동학을 사랑하는 후배 모두에게 진정한 동국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柄)



趙 旺 基 (경상대 무역학과)

습니다"며 털어놓았다.

趙교수는 특히 한국의 무역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최근 한국 수출산업의 1982년부터 5년동안 품질과 기술혁신에 관

이러 趙교수는 스스로의 학문탐구에 대한 열정을 "퇴임후에도 환경이 달라져 가지는 학문연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제 남은 여생의 조그만 계획이요. 그리고 학술연구소장을 설립해서 여러 학자들과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문영역을 조금 더 넓혀 볼까합니다"며 의욕을 표명한다.

평소에 학생들을 대할때마다, "학문이 깊지 않은 정도보다 우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자신의 맡은 임무는 삶은 소리고 노력과 인간으로서 발전해나갈 가장 귀한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강조해 학생들에게 깊은 신앙을 받

문화대선

광주소재 '부활의 노래' 극장상영 어려워져

광주항쟁을 소재로한 최초의 35mm 극영화 '부활의 노래'가 공영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극장 개봉을 못하고 있다. 공영 측은 '부활의 노래'가 공영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법민족 대회 때 시사회를 가진 것을 이유로 심의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부활의 노래'를 세빛 영화사로 돌려보낸 것.

한편 각계 영화관계자들도 "공영이 영화에 대한 심의자체를 포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극단 실험

'햄릿' 공연

극단 실험에서는 제14회 서울연극제 참가작품으로 '햄릿'(김홍우제작·기국서 연출)을 기획한다.

이번 연극은 오는 9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시간은 1월 2회(4시30분, 7시30분).

알리고 싶은 책

황필호교수 새책 출간 "그대 내일 행복하고 싶다면"

인간이 타고난 단 하나의 권리는 먹고사는 것이라. 이것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다. 저에게서 이보다 더 앞서는 법률은 없으며, 이보다 더 가치있는 삶의 법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먹기위해서 일을 해야되고, 일을 하기위해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에는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전할하는 사회가 너무 많다.

—본문중에서—

본교 철학과 황필호교수의 이번 저서는 수많은 직업인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제시하기위해 출간된 것이다.

모두 2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당신은 왜 일을 하는가" "먹기위해서 사는가 혹은 살기위해 먹는가"등의 소재를처럼 일한 직업인들이 보편적으로 목감라하는 돈, 일, 직업, 삶에 대한 물음과 토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승수·사)

시야를 세계로 넓혀 자신과 학교의 발전을 이루도록

지 제적해 오고 있으며, 경상대학장등을 역임해 학생들의 진로 관제에도 도움을 줬던 동국발전의 산증인이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작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학술문제로 가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제자를 만나 외국에 가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세계인이 되었음을 보고 대견하기도 했

진보적 시사종합지

말 9 (주)월간말 값3,300원 정기구독문의 778-6523,4 1990

시사주간신문의 폭로저널리즘 정치권의 천일인맥 노동운동가 최동의 삶과 죽음

민족민주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독점재벌의 신종투기, 기업합병 한국지식인의 프롤레타리아화

민자당, 내각제개헌을 포기하는가

방향하는 6공의 통일정책

단독입수/서경원의 방북기록

내가 만난 김일성

독일,반민중적으로 통일되고있다

후세인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중동전략

야권통합과 김대중의 선택 노태우의 이미지정치

제주도는 재벌들의 식민지인가 프로야구단의 손익계산서 '차별의 감옥'에 갇힌 여성노동자 미국의 군비감축과 제3세계평화

우루과이라운드 한국농업의 위기 서비스시장 개방

창살너머로 번뜩이던 눈빛을 그리며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권용수 학형에게 띄우는 글

—한달반전 쯤에 약해진 모습으로 형을 찾아 갔을때 창살너머에서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형의 눈빛을 기억하며 이 글을 씁니다.

영원 끝날것 같지않던 한 여름의 무더위도 가고, 그래도 아침저녁 시원한 바람에 한숨들리며 이제는 가을이라니 얘기도 좋을듯 하늘이 청정합니다.

환절기라 감기가 유행하는데 어쭙한 위생시설을 갖춘 구치소 안에서 형, 건강하세요?

이곳 학교는 학생회관에 상주하는 형들이랑, 7천만 학우 모두 개강을 맞아 수업준비와 2학기 사업을 준비하느라 연일 바쁘게 뛰고 있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형을 못본지가 벌써—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형을 우리에게서 떼어간지—너달이 되었군요.

그러나 4월이요. 4·19절,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의 민주화투쟁이 민주민주투쟁에 대한 특이한 한참 심해 힘에 겨워하던 후배들에게 “청년학도는 파쇼악법, 파쇼기구철폐, 양심수석방, 민주헌법, 민주주의후퇴의 구체적 사실을 매개로 아래로부터 대중투

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말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었던것 기억나요?

풀죽은 모습으로 형을 찾아가면 형목유의 너털웃음과 함께 “오늘 술 한잔 하자”하며 가진 돈명령이 고민을 함께 하려했던 모습이 새삼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때 형은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하찮은 저희들의 투쟁을—내일이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얼굴들—에게—이해해주던 모습에 왜 그때

참혹하게 아름다울 그날 위해 형에게 땀땀하도록 투쟁할것

좀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하고 2·3 학년들 모두 가슴이 아팠어요.

4월30일이었던가요?

형이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선거의 청년결사대로 조직되어 학생6명과 함께 대구직할시 경찰국립대에 서 ‘현대중공업 투쟁승리로 노동운동단합분쇄하자’를 외치다가 구속되던 때, 저희 모두는 형의 모습에서 그동안 친해되고 나뉘었던 모습을 너무나 뼈아프게 각성하고 5월

투쟁으로 이어가자고 다짐했었어

요. 형이 저희들에게 대구시경 점거농성에 들어가시기전에 남겼던 긴 편지에서 형의 고민과 투쟁의 의지를 읽으면서 편지의 한 귀절처럼 “참혹하게 아름다울 그날 위해 투쟁을 노래할” 그날을 위해 지금은 슬퍼할때가 아니라는 것을

요. 참 이이러니한 일이지.

옆에 있던 동료 선배를 잃고 나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겨레의 정서 하나로 엮은 공연

한겨레신문사 주최 ‘겨레의 노래 대공연’을 보고

“비나이다/도우소서/비나이다/비나이다/부디 도우소서/젖어지고 갈라진 한반도 위에/지금도 울음 울며 떠도는 낯이며 도우소서/깊고 긴 어둠과 혹독한 가난/전쟁에 침략에 들끓는 암흑에/우리고 병들어 죽어간 낯들이여 도우소서/.../낯들이여 도우소서/문명의 새 새벽 다가오는데/아직은 캄캄한 해 뜨기 전 어둠/동일된 나라 이부도록 부디부디 도우소서...”

경계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겹고 무더운 여름을 하계농원, 민중시대를 여는 학교, 민문연 M.T로 거둔다 이겨내고, 다시 모여든 학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학교에서 형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권선 투쟁의 결의를 다졌나

전노협 사수원인 8월 26일 이 항에 (인문대 철학과)을림

에 나뉘었던 생활들을 하나하나 반성했어.

그때 범정부투쟁을 벌이다 대한청이랑 정경투쟁이 전경, 백골단에게 맞고 끌고 갔을 때였어. 그때만큼 제가 힘이 세졌으면하고 바란 일도 드물었어.

달반쯤 전에 집안문제로 고민하다가 기회가 생겨 형에게 찾아갔을 때 형을 위로(?)려 했던 제가 오히려 형에게 힘을 얻었던 것 지금도 감사해요.

검게 탄 다른사람들과 달리 햇빛을 못와 하얀 형의 얼굴과 세기 꼬박 먹을수 있어 살았다고 자랑하던 형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수가 없었어.

학교사정이나 전학추모일에 대해서 열심히 묻던 형의 열기와 달리 일머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를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가는 저편 여인네’ ‘충을 낸 젊은 군인’등을 담은 한국전쟁의 모습이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졌다.

이어 가수 서유석씨가 ‘내고향(작사자 미상/정사인 작곡)’을 부를 때에는 관중석 계단 양쪽으로 각각 어머니·아들로 분한 배우가 등장해 한사코 헤어져서 생활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재현해 보였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는 가까이 지나가 잠깐 떨어지는 두사람을 보고 “아이 그냥 얼른 달

려갈 것이지...”라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해방은 됐으나 아직도 우리는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환기해 준 ‘이태원이야기’(연중곡 작사·작곡)가 경쾌한 리듬과 함께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자 무대위에서는 이태원의 풍속도가 무용수들의 현란한 춤을 통해 묘사돼 주위사람들이 ‘꽃향기’를 차게 만들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이미 ‘겨레의 노래’·‘음반수록곡중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달라 소리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공연이 끝난뒤에도 북한노래를 당국의 제재로 못들은 아쉬움으로 가슴이 저미는 사람은 다란 기자뿐이 아니었다.

〈박영만 기자〉

공간 ‘소리터’ 문화 방송

공간 ‘소리터’에서는 외래의 페퍼·향락적 소비문화속에서 슬하계 단절되고 왜곡되어 잊혀져 가는 우리 가락들을 널리 보급하고자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강습내용 및 시간

1. 풍물:매주 화, 금요일

2. 판소리·민요:매주 월, 수요일

3. 탈춤:매주 수, 토요일

4. 단소:매주 목, 토요일 문의전화:338-8420

있긴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제정치에 있어 적반하장적이다. 미국은 스스로 국제평화의 파수꾼이라는(이것도 아진 인수지) 환상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럴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력으로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무력개입은 결코 그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의 리비아와 파나마가 지금 아랍에서 생겨나듯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미국의 이익에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지도자나 국민들이 살상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어떠한 일이라도 그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면 저수없이 철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한미군철수의 이유이다. (중)

에서 열심히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나라의 국가지도자가 미군기지의 주둔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침공해 그 국가지도자를 잡아가고(파나마), 미국 근처에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다하여 병력 5천명밖에 안되는 그레나다를 침략하고선 상륙이라고 애써 변명한다. 더욱이

적반하장

리비아에서는 미국스스로가 세계 최고의 화학무기생산보유국가이면서 리비아가 화학무기생산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카다피를 암살하려 대통령관저를 공격하려 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UN의 권위(?)까지 얹고 아랍에 대한 분열주의를 해소하려는 이라크까지 침공하려 하는가 ▲이라크의 루웨이트침공은 어찌되

었다. 비슷한 말로 우리 옛속담에 ‘X물은 개가 겨우는 개 나무란’다는 말도 있다. 이러한 말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잘못을 모르고 대든다거나 더큰 잘못이 있는데도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것을 비꼬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간다 보면 잘못을 저지러 수도 있고 그 잘못으로 팔비암이 육도 먹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절절한 자기비판과 성찰일 것이다. ▲요즘 이라크의 루웨이트침공과 미국의 무력개입을 지켜보면서 위의 말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왜일까. 전 나카라라 대통령 오르테가야 말 “모든 약은 미국으로부터 온다”는 결코 요란한 선언이나 극렬한 구호만이 아랍을 미국이 이라크

金剛山 종단 말을 風便에 난짓 듣고

일부일부 타령조에 어깨춤 추면서 개기춤, 고개잡이, 명석말이, 곱사위, 여단이 춤까지 걸판지게 추어보자. 양광전소주하며 파계승도 한몫하고, 목베고 구경하던 우리네 뱃님네도 덩실덩실 춤을 추세.

억눌려 한맺힌 일, 세상사더러 일 객과리 장단속에 신명나게 풀어보자. 음중도, 취발도, 말뚝도, 샌님도 한미당여울리만 우리는 한민족—

탈춤이란 민족의 공동체적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민중의 뜻과 맘의 결집이 독창적극형식에 의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아예의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태적인 답습이 아니라 동태적 의의발견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아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문화를 전승해갈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경래세, 한민단 파주세요.” 유영이 한참 지난 춘스런 복정에 텔레비전 광고 유영이를 흉내내며 ‘남쪽’남자에게 애교부리는 ‘북쪽’여자.

한주일의 피로를 풀고 부단없이 볼 수 있는 코메디 프로그램의 하나인 KBS 2TV ‘쇼비디오 자키’의 ‘남남북북’은 말 그대로 남쪽의 남자와 북쪽의 여자가 만나면서(사랑하면

서) 생기는 일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그들이 주로 메이트하는 장소는 레스토랑이나 약국, 디스코 박동 남남사회에서나 보편화된 곳들이다. 그러나, ‘남남북북’에 나오는 ‘북녀(北女)’는 시종일관 엉뚱하고, 모자라는 행동으로 ‘남남(南男)’에게

‘북한’소재 코메디 문화의 다양성 존중해야

핀잔과 가르침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서 북으로 대표되는 북녀는 물론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지만 뒤떨어지고 못난 아가씨로 등장한다. 이 철없고 순진한 아가씨와 만나는 남쪽의

토랑에서 양식하는 예의, 디스코 텍에서 춤추는 자본주의 문화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북을 대하는 태도는 체제가 달라서 생기는 이질감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대화로서 해소하고 한겨레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

여 가지어,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남남(南男)으로부터 웨이터를 부르는 것을 제대로 배운 북녀(北女)는 잠시 남남(南男)이 자리를 비운 새 ‘웨이트’를 부르며 장난을 치다

가 가자, 쌍’이라는 무식